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관리)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건축디자인혁신팀장	최 훈	2133-7609
관련 누리집	https://project.seoul.go.kr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0 쪽

서울의 품격을 높여줄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6건 선정

- 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사업 공모(~4.5.)...국내외 유명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수준높은 건축 디자인 14개 사업지 접수
- 평가 주안점으로 혁신디자인 발전가능성, 디자인 컨셉, 장소성, 파급성 등 고려
-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추가공모·수시접수 등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확대 방안 다방면 검토하여 지속 추진 예정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공모 관련 대상지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차 공모는 작년 12월 공고를 시작해 지난 4월 5일에 마감하여 14건을 제출받았고, 30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하여 6건을 선정하였다.

○ 2차 공모에 대한 결과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 게시되었다.

이번 심의는 제출된 사업안에 대하여 혁신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
-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의 제안
- 자연 역사와의 조화, 대지 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
-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
-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
-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율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

□ 선정된 주요 사업지로는 ‘Seoul Playground’(서초구 서초동) ‘A jewel for Seoul’(강남구 압구정동), ‘Symbiosis’(용산구 한강로2가) 등이 있다.

- A JEWEL FOR SEOUL은 백화점 용도의 건축 물과 어울리게 화려한 외관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상의 공개공지, 지하 연결 통로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 SEOUL Playground는 전체적으로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저층부의 볼륨을 덜어내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는 직관적인 개념의 작품이다.



과감한 구조해석, 자연과의 조화, 명료한 매스디자인 등 혁신디자인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작품이며 다른 건축가들도 주목하고 공감할 디자인으로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여줄 작품이다.

- 기존 나진상가의 입체적인 동선체계를 그대로 계승하여 공생이라는 뜻의 프로젝트명과 충분히 부합되는 SYMBIOSIS는 독창적인 건물 외관 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공간으로 길게 이어지는 정원, 실내 곳곳에 조성한 아트리움 등의 공간으로 지역의 명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자인이다.

*해당 명칭은 민간사업자가 붙인 대상지 명칭임.

- 해당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의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서울의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게 되어 즐거운 심사였다.”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옥석을 깎고 다듬어 눈부신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고, 다채로운 미래 서울을 완성하는 도시경관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앞서 ‘제1차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공모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사업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디자인혁신 사업이 건축가의 위상 제고, 시민들의 우수한 건축을 대하는 인식 변화,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디자인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선정작 및 평가의견

□ 선정결과 : 선정 6, 보류3

구 분	사업개요			평가 의견
	사업명 / 건축가	규 모	조감도	
선 정 6	A Jewel for Seoul (강남구 압구정동 494일원) 토마스헤더윅 + 해안건축	대지면적:17,942㎡ 규모:지하7,지상8 용도:소매시장(백화점)		▶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통하여 서울의 상징성을 강화할 만한 디자인으로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하광장은 공공성을 강화
	seoul playground (서초구 서초동 1324-5일원) BIG + 창조건축	대지면적:8,900.4㎡ 규모:지하6층/지상38층 용도:업무시설 등		▶ 과감한 구조해석, 자연과의 조화, 명료한 매스디자인 등 혁신디자인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작품
	stacked city (강남구 삼성동 148-1일원) 도우건축	대지면적:5,600㎡ 규모:지하6층/지상33층 용도:업무시설 등		▶ 자연친화 미래건축물을 컨셉으로 입체적인 녹지 계획을 입체보행계획과 연계 하여 공공성 확보
	5 Zero 청담타워 (강남구 청담동 124-7일원) 위르겐마이어 +도시건축집단아름	대지면적:1,378.6㎡ 규모:지하9층/지상41층 용도:오피스텔, 문화시설		▶ 도시 경관 속 살아 숨쉬는 유기체를 형상화하였고 기능까지 구현되길 기대
	symbiosys (용산구 한강로2가 15-13일원) 더시스템랩	대지면적: 3,085.9㎡ 규모:지하6층/지상25층 용도: 업무시설		▶ 건축물이 외기와 접하는 접점을 풍부하게 하는 조형적 컨셉을 각각의 건물에서 수직, 수평 방향의 건축공간으로 수준 높게 구현하였고 이를 공공에 개방하여 공공성까지 확보
	대지면적: 6,335.2㎡ 규모: 지하6층/지상28층 용도: 업무시설 등			

보 류 3	한남산수화 (용산구 한남동 627 일원) 해안건축	대지면적: 6,738m ² 규모: 지하6/지상49 용도:업무시설 등		▶ 과도한 높이, 용도, 건폐율 조정
	urban xenos (관악구 봉천동 1663-5 일원) 오오건축	대지면적: 1,386.4m ² 규모: 지하6층/지상18층 용도:숙박시설		▶ 저층부의 공공성 확보 필요
	키플렉스 더가로수 (강남구 신사동 546-6일원) 이은영	대지면적: 1,123.1m ² 규모: 지하4층/지상12층 용도: 업무시설 등		▶ 과도한 높이 및 용도지역 변경 방향 조정

※ 순서는 접수 순임.

□ A Jewel for Seoul

-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청담동, 로테오거리, 한강 등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지하광장을 계획하고, 실내외 공개공지를 통해 중층정원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강조한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헤더웍 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독창적인 모래시계 형상의 더블스킨 외관 디자인으로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도로 정형화된 곡선형 파사드는 시민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과 연계된 도시정원을 형성하여 더 나은 도시환경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 조감도



□ Seoul Playground

- 서울 플레이그라운드에는 다양한 바닥 면적을 가진 5개의 직사각형 볼륨이 적층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층부 볼륨을 극적으로 떨어내고, 상층부 볼륨을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독창적인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 저층부 볼륨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를 공공에 내어주고, 고층부 볼륨을 최대화함으로써 최상층 공공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타워 내 각 매스는 상부층으로 갈수록 변화하여 저층부에서는 타워 볼륨의 넓은 면이 남북측을 향하지만, 고층부에서는 동서 측을 향하게 됩니다. 이는 타워 고층부 볼륨은 남북측의 개발 예정인 고층 건물들에 의해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또한 직사광선의 영향을 크게 줄여 건물의 효율적인 열에너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타워 볼륨의 변화는 타워 동서 측에 연속된 그린테라스를 만들어내며, 이는 지상층의 도시공원을 수직적으로 연장시킵니다. 층층이 쌓인 볼륨은 남북측에 돌출부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이내믹하고 상징적인 경관을 제공합니다.

○ 조감도



□ Stacked City

-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신축될 아셈길 복합업무시설은 다층복합 입체건축물로, 건물의 밀도가 높고 단조로워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통로인 아셈로에 다양한 입체 보행로와 자연 쉼터 및 문화시설을 도시민에게 제공, 거리의 보행 중심 구조를 활성화하고 이런 구조는 일과 여가를 융복합해,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미래 성장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 대지면적의 120% 녹지를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업무시설을 자연·문화 중심 건축물로 구성합니다. 이는 건물의 내·외부공간을 통해 개인의 일상에서 입체적 경험을 갖게 하고, 도시의 지역 경관에도 획기적 전환을 가져옵니다.
- 결과적으로 녹지공간과 입체 보행 계획을 통해 보행 중심 구조를 장려하고, 공공에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감도



□ 5 zero 청담타워

- 건축 컨셉: 청담의 어원처럼 '맑은 물 · 맑은 못'이 살아 숨쉬는 자연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과 자연의 모습을 건축물로 구현하여 5 ZERO 빌딩으로서 자연의 순환과 유기적으로 흐르는 움직임을 상징화 하였다.
- 디자인의 주안점: 지속 가능한 물과 식물을 통한 가든타워, 수면 위의 물방울처럼 건물을 둘러싼 녹색 테라스, 오가닉 스트럭처를 통한 물결이 흐르는 유기적인 모습을 디자인 키워드로 삼아 도시 경관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유기체를 형상화 하였다.
- 공간구성의 주안점: 혼잡한 도시 속에 녹색의 오아시스로, 에너지, 대기, 물순환, 자원순환, 저탄소의 도심숲을 통한 5 ZERO 빌딩을 구현하길 기대한다.
- 도산대로에 열린 교류공간으로서 자연과 한국의 패션 · 문화 · 글로벌의 매력을 지닌 명소로 특화된 문화 청담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조감도



□ SYMBIOSIS

- 프로젝트는 용산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와 특별 계획구역10, 두 대지에 함께 계획되었습니다. 두 건축물에 범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생 (SYMBIOSIS)' 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적용하여, 용산메타벨리에 서울을 대표할 프라임 오피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본 제안은, 극단적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이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기술을 통한 공생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성장을 돕고, 자연은 그 부산물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순환 시스템이 건축물의 기본 작동원리가 되게끔 고려하였습니다.
- 이러한 작동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외기와외의 충분한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또는 준외부 공간의 설정이 전체 건축물에 충분히 분산되어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간들이 도시내 공공 공간으로 입체적으로 건축물에 자리잡음으로써, 모두에게 개방되는 세계 최장의 2km 공중 산책길을 가지는 수직공원 (특계 10구역) 은 물론, 다양한 높이에 존재하며 공중에 떠있는 온실공원 (특계 4구역) 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제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구성은 또한, 수직과 수평의 매스 분절을 통해 저층부에서 시작하는 개방성의 연속적 전개를 구현하며, 대지내에서 전.후방의 관계를 시각적, 맥락적으로 이어주는 도시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 조감도

